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1000억 사업비로 농어촌 기반 강화한다

[윤성수]

직원 결의대회 열고 추진 상황 공유... 신속 집행·성실시공·안전관리 다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직원들이 6일 2026년 사업비 1000억원 추진을 위한 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신속한 예산 집행과 성실시공,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지역 농어촌 기반 강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제공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2026년 사업비 1000억원 추진을 목표로 농어촌 기반 정비와 지역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역대 최대 규모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지역 농어촌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6일 2026년 사업비 1000억원 추진을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해남·완도지사는 올해를 '사업비 1000억원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사업비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ADVERTISEMENT

정경훈 지사장은 "역대 최대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성실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발전하는 해남·완도지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해남·완도지사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예산 집행 속도와 현장 안전관리, 공사 품질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Tag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